



하나님을 경외하라

(신 10:12-17)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그의 아들까지 보내셨습니까? 그의 아들이 죽으시기까지 인간이 구원받을 존재입니까?

오늘의 위기는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이 왜 이 세상에 사는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기원과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올바른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안다고 해도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잡고 제각각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1.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옛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2.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최대 걸작품입니다.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시 8:5-6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을 다 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신비롭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창조물 중 가장 으뜸이요, 걸작품입니다. 왕관을 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시 139:13-14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
심에 심히 기뻐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3. 모든 생물은 수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부터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 새, 곤충, 동물, 식물은 수백만 가지의 종류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한 사람을 흠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 1:2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 5:1-2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2013년 10월 18일 연합뉴스는 조지아 국립박물관과 스위스 취리히 인류학 연구소 과학자들이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 근처에서 발굴한 180만 년 전 인류 두개골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별개의 종으로 알려진 인류가 현재의 인류와 한 종이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240만 년 전 인류 화석과 같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할 때 진화론을 근거로 달의 나이를 45억 년으로 보고 달 표면의 먼지 두께를 추정하여 우주선의 다리를 6m로 하였으나, 먼지는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4.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힘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
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담 이브

↓

--	--

따

HFG

태양

다 보

새

부고

UIC

사람

인간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며, 인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
명과 가정과 복과 능력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충만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물을 두려워하며 섬기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관리하며 다스리며 이끌어가도록 목자로, 청지기로 창조하셨습니다.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시 8: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5. 인간의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어도 영광 중에 계시며, 수많은 천군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무한하며 무궁하지만, 사람만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고전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롬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피조물과 연대해도 0.1%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인간과 연대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스스로의 지식과 힘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와 함께하는 삶, 그의 복을 받으며 그의 힘과 도움으로 사는 삶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대상 29:11-13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시 73:25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렘 2:19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렘 4:22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렘 9:23-2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렘 17:5-8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 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렘 17:13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흠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고전 7:33-34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21세기 인류의 위기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위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아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합시다.

암 5: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호 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 14:1-2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대하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